

투자순유출은 국내 일자리를 줄이는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투자순유출이 늘어나면 국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투자순유출은 곧 국내 일자리 감소라는 주장은 국내설비시설이 당장 해외로 이전하는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투자순유출이 일자리창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기업차원에서 고려해 보면 신시장개척을 위한 기업의 해외현지진출은 동반진출한 협력업체에게 사업기회 확대의 기폭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내 일자리를 오히려 늘릴 수 있다. 국내에 머물렀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현지 생산 및 판매가 해외직접투자로 인해 확대되고 이와 관련된 국내 협력기업들의 수출과 생산 및 일자리도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베이징 현대자동차 사례의 경우 신시장개척을 위해 베이징 현지생산 및 판매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동반진출한 중소·중견협력사의 국내고용은 비협력사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대기업의 글로벌 경영 확대를 협력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경우 투자 순유출은 오히려 국내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출이 늘어나면 국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이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됨
 - 산업연관표의 연도별 취업유발계수를 이용해 해외직접투자 순유출액을 기준으로 일자리 180만개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함
 - 신규투자액 10억 원당 국내일자리 12~15개를 유발한다는 점을 적용
 - 2005년 이후 투자유출액 1,232억 달러와 곱하여 약 179만개 일자리가 국내에서 사라진 것으로 산정
 - 당장 국내에 투자될 자본이 해외로 나갔다는 측면에서 국내 설비투자가 줄어들고 그 결과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지 신시장개척을 위한 해외직접투자를 생산비절감을 위한 기업의 해외진출 목적과 구별하지 않고 투자 순유출은 국내고용에 부정적이라고 판단함
 - 투자 순유출이 기업수준에서 실제로 국내일자리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 미시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국가차원의 일자리 파급효과를 추정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순유출이 이뤄진 후 현지생산 및 판매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국내 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통합하여 장단기적인 안목으로 분석해야 함

- 기업수준에서 글로벌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해외현지 생산 및 판매를 늘릴 경우 국내 기업과의 동반진출 및 협력관계로 인해 국내 기업의 수출, 생산 및 일자리가 증가할 수 있음

□ 베이징 현대자동차와 같이 새로운 거대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진출을 확대할 경우 국내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국내고용 역시 증가

- 베이징 현대차의 현지판매량이 급증한 2011년에 현대차 중소·중견협력업체의 국내고용, 매출 및 수출이 비협력사 보다 크게 증가
 - 현대차는 2002년 중국 베이징 현지법인 설립 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1년에는 현지 누적판매량 300만대를 돌파하며 성장
- 베이징 현대차 협력사의 국내고용은 비협력사보다 평균 40여명 많아
 - 현대차 협력사가 속한 17개 산업의 국내고용, 매출 및 수출을 비교분석한 결과, 2011년 중소·중견협력업체의 평균 국내고용은 약 119명인 반면 비협력 중소중견업체의 고용은 평균 80명에 그침

<표 1>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와 비협력업체의 실적(고용, 매출, 수출) 비교

(단위: 명, 십억원)

실적	현대차 협력사	비협력사
고용	119 (4.5)	80 (3.5)
매출	66.71 (20.2)	49.26 (12.4)
수출	34.45 (19.2)	22.01 (13.5)

주: 17개 산업 내 현대차 협력사 80개사와 비협력사 12,275개사의 2011년 평균고용, 매출 및 수출,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최남석(2013), 『한국 대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KERI-Brief 13-25, 한국경제연구원

- 현대차가 중국 현지공장을 통해 현지 판매량을 늘려가면서 협력사 매출도 증가하고, 부품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국내에서 고용을 늘리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 핵심 부품을 국내 공장에서 만들어 납품하는 협력사들이 늘면서 국내 산업구조도 기술 집약형으로 변화하는 긍정적 효과 발생
 - 해외직접투자 확대 → 중소·중견 협력사 매출 증대 → 부품 및 사업경쟁력 강화 → 추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고리 형성
- 이와 더불어 전반적인 생산과정의 효율성이 증가하면서 국내 및 해외현지 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요 및 일자리가 늘어남

<표 2> 현대자동차 해외매출 및 협력사 고용증가율

(단위: 명)

	2010	2011
중소중견협력업체고용	114	119(4.4%)
대기업협력업체고용	175	181(3.4%)
협력업체평균고용	149	154(3.6%)
현대자동차 해외매출	21조 1693억원	26조 998억원(23.3%)

자료: 최남석(2013), 『한국 대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KERI-Brief 13-25, 한국경제연구원

- 성공적 현지화를 통해 해외생산확대 및 새로운 거대시장을 개척할 경우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투자순유출을 부정적 시각으로만 보는 것은 잘못된 접근
 - 대기업의 해외생산확대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동참을 유발하면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대에 이어질 수 있음
 -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경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